



##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 115:9-11)

사람들은 국가가 무한한 군사력과 정치·경제력을 가지면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고,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보십시오. 지상의 모든 군사, 정치, 경제의 강대국은 다 망하고 무너졌습니다.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나라뿐입니다.

단 2: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 31:1-2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외부적인 것에,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기업이나 권력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 알렉산더 대왕(Alexandros the Great, B.C.356~B.C.323)은 마케도니아 왕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나 33세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은 프랑스 황제로 즉위하여(1804년) 세계를 점령했으나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실패하여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독일의 총통이 되어(1934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를 점령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를 다 손에 넣으려 했으나 1945년 4월 30일 지하벙커에서 애인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하였습니다.

1. 이 사람들이 가졌던 힘은 세상의 힘이었으나 그 힘으로는 승리와 행복, 그 어느 하나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2.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능력을 다 가졌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었습니다.

3.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강한 힘이 전부인 줄 알았으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시 49: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4.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한 분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실패하고 멸망하고 불행하지만,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의 위기는 세상의 힘을 좀 가졌다고,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는 영적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세계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면 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됩니다.

신 8:12-15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 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와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신 8:19-20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미국은 1620년, 102명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하여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모든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렸고, 아버지가 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초기 107개 대학의 설립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초기 100년 동안 목사 외에는 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성경 말씀과 십계명을 외우고, 백악관에서는 기도가 그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상원 회의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라고 적혀 있고, 미국 달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 년 전부터 미국은 영적 힘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당하는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바벨론, 애굽, 로마 같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힘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가정에도 조화, 국가에도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인격과 건강, 마음과 생활, 대인관계와 성품, 개성과 합리성 등 모든 일에 조화를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설령 재산이 많더라도 그 재산 때문에 자녀가 빠тол어지고, 불안이 심해지고, 그 돈으로 죄를 지어 기쁨과 평안이 떠나고, 고급술에 빠집니다. 2011년 11월 17일자 <메디컬 투데이>에 따르면 술 한 잔만 마셔도 60가지 질환이 생기고, 14가지 암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